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9. 교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행 20장 31 ~35절]

♣ 교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요?

1. 귀찮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귀찮다 :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

교회는 왜 자꾸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합니까? 나를 성가시게 합니까?

2. 귀찮게 해서 좋다는 것인가? 나쁘다는 것인가?

. 귀찮은 것 = 나쁜 것 이런 통념을 깰시다.

3. 교회가 귀찮게 하는 것인 온당한 것인가? 부당한 일인가?

신자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교회는 정말 교인을 귀찮게 하는가?

1. 교회에서 누가 귀찮게 하나?

2. 귀찮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귀찮게 합니까?

3. 누구를 귀찮게 하는가? 특정한 사람인가? 교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가?

질문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객관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대한 오해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 해 줍시다.

♣ 근원적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1.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오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C.S 루이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흠으로 돌아갈 존재를 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2. 신자는 왜 교회에 출석하는가?

1)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기 위해서

2) 인생의 마지막에 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 되기 위해서

3.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 교회에는 녹슨 교인이 많은데 그것을 덮지 않고 있는 이는 더 많다. -하브너

. 교회에는 거듭난 사람들 보다는 명목상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더 많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때 성도들은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리처드 벅스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묻은 '녹' 을 매일 닦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녹을 닦아내는 상태입니까?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입니까?

4. 교회는 왜 신자를 귀찮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 간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레가 차고로 간다고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빌리 선데이
교회에 들락거린다고,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닦아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주면 그 진리로 내가 닦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녹슨 신자들의 녹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거룩하고 신성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자가 녹슨 상태라면, 신자가 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신자를 귀찮게 해야만 합니다.

♣ 성경의 가르침을 봅시다.

- 사도행전 20장 31~ 35절 읽어봅시다.

1) 바울을 몇 년 동안, 어떤 시절을 보냈습니까?

(삼년)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성도들의 녹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2) 바울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였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서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마지막 날에는 상속받아 누리게 하려고

3) 바울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돈)을 탐하지 않고 (모본)을 보여주며 (약한)사람을 도우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눈물, 예수그리스도의 눈물, 주의 종들의 눈물을 기억 하십시오.

그 눈물이 우리의 녹슨 영혼의 녹을 닦아냅니다.

♣ 현재 우리의 상태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봅시다.

- 예배소서 2장 1절

1)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 과 (죄) 로 죽었는데 (방금) 살아난 존재입니다.

10년 전부터 믿었어도, 50년 전에 믿었어도, 방금 죄와 허물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납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 요한복음 17장 15~17절

1) 예수님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기 까지, 이 땅에서 다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2) 예수님과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일치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세상) 에 통제받지 않고, (하늘)에 속하여 삽니다.

3)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말씀 즉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기록해 지기 때문입니다.

- 로마서 7장 18~ 2절

1) 바울의 간증을 통해 바울과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나는 녹이 슬어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어찌다) 뉘어야 합니다.

2)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 (속) 사람과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법을 감당할 수 가 없다.

. 외부의 신령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흠으로, 죄와 악으로, 사망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려고 괴롭힙니다.

선한 싸움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거나 감시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할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늘로 돌아가게 하는 인생의 막대기가 있습니까?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있는 죄와 악을 떨어뜨리기 위한

진리의 막대기가 있습니까?

✚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로 돌아갈 우리 서로의 녹을 닦아주며 기도합시다.

올해 제가 귀찮게 해도 될까요?